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리 금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활을 반영하는데서나 인민들의 투쟁력사를 전하는데서 사진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진은 당대의 현실과 역사를 생동한 직관으로 보여주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5페이지)

보도사진은 그 생동성, 직관성 등으로 하여 출판보도물의 편집내용과 형식을 꾸리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구성요소의 하나이다.

글은 일정한 사상을 전달하고 본질을 깊이있게 밝혀내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는데서는 사진의 모사능력을 따를수 없다. 사진은 기계광학적수단에 의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여놓은것이므로 사람들은 사진에 반영된 사실과 사건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전적으로 믿게 된다.

그러므로 보도사진촬영을 잘하는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하는데서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의 장정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보도사진화면에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여 수록할 때 최고령도자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사진문헌으로 우리 조국의 력사에 길이 남길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구체적이고 생동한 직관적화폭을 통하여 적극 선전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며 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사진화면에 수록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사진화면에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것은 출판보도물에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절대적인 권위와 위인적풍모를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진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가장 밝고 정중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 촬영각도를 어떻게 잡는것이 좋겠는가 하는것을 심중히 따

저보고 촬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사진화면에 모실 때 화면의 시각적중심과 내용상중심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사진화면의 시각적중심위치에 환하게 모시면서도 그이께서 진행하신 혁명활동내용을 부각시켜 보여줄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사진화면에 수록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면에 잘 모시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인민과의 관계속에서 나타나고 빛을 뿌린다. 인민을 떠나서는 수령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면에 모시는것은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를 사실그대로 감명깊게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뜨겁게 맺어진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출판보도물에 이러한 화폭들을 그대로 담으면 사람들은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사진화면에 수록하면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하신 영상을 많이 찍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사진화면에 수록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진행하시는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수록하는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는 우리 혁명의 력사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은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풍모와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문헌적인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사진기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사진화면에 전면적으로 폭넓게 수록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진행하시는 혁명활동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순간들과 장면들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수록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보도사진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찍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현실에 실지 있는 대상이나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실, 사건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현실에 실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나 사실,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진이 보도사진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보도사진으로 되려면 사진기자의 사상미학적견해와 관점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된 사회정치적의의가 큰 전형적인 생활, 새로운 소식들과 사실, 사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보도사진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찍는다는것은 현실생활을 사진화면에 반영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등이 집중적으로 안겨 오는 의의있는 장면들을 포착하여 찍는다는것이다.

우리 출판보도물에서 보도사진은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보도사진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현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잘 보여 주어야 한다.

보도사진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찍자면 우선 사진기자들이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식견은 모든 사물현상을 혁명적관점에서 올바르게 보고 예리하게 판단할줄 아는 당적안목을 말한다.

사진기자의 높은 정치적식견은 보도사진의 정치사상성을 규정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사진기자가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지고있어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얹혀져있는 현실속에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정확히 식별하여 가치있는 보도감을 포착할수 있으며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그 본질을 명백히 밝혀낼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높은 정치적식견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도사진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찍자면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문제, 해당 시기 당에서 힘을 넣는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보도사진의 주제로 들고 나가야 한다.

사진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그를 구현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사진화면에 반영하기 위한 촬영활동을 신속히 벌려 광범한 대중이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사진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찍자면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는 생동한 소재들을 찾아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오늘 우리 인민이 마음껏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사진화면에 잘 반영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똑바로 인식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할수 있다.

이와 함께 수령에 대한 지극한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기풍을 발양시키는데서 앞장서고있는 시대의 전형들을 사진화면에 진실하게 반영할 때 보도사진의 정치적의의가 더욱 높아지며 그 인식교양적기능과 감화력은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의의있는 생활소재들을 찾아 뛰고 또 뛰어야 하며 그것을 제때에 화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순간포착을 잘하는것이다.

보도사진촬영에서 순간을 포착한다는것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사물현상과 사실, 사건의 흐름가운데서 그의 본질적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 의의있는 전형적인 순간을 선택한다는것이다.

여기서 의의있는 전형적인 순간이란 촬영대상의 본질이 조형적으로 뚜렷이 나타날수 있도록 시공간이 잘 결합되어 조건지어진 계기이다. 다시말하여 찍으려는 사물현상과 사실, 사건, 주위환경이 정확히 선택되고 구도와 조명, 그에 따르는 기술적조건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된 순간을 의미한다.

가장 전형적인 순간, 해당 대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공간을 선택할 때 사진기자는 보도가치가 있는 훌륭한 장면을 얻을수 있다.

보도사진촬영에서 순간포착을 잘하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다.

아무리 흥미있는 내용이 담겨져있고 기묘한 촬영숨씨가 깃들어있는 보도사진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하지 못하고 현실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다.

보도사진촬영에서는 영화촬영이나 일반소개편집물촬영과는 달리 반복촬영이나 인위적인 형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실재한 사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사진기자가 조화로운 조형적구도속에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여 움직이는 대상을 일시 정지시켜놓고 촬영한다면 비록 잘 짜인 구도와 형식에 현실을 담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생동하게 안겨올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보도사진촬영에서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위적으로 재현시키거나 정지상태에서 찍을것이 아니라 반드시 움직이는 현실그대로의 상태에서 가장 전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보도사진촬영에서 순간포착을 잘하자면 우선 촬영대상에 대한 깊은 파악과 예리한 관찰력,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사진기자가 아무리 촬영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촬영대상에 대한 파악과 관찰력, 판단력이 없이는 전형적인 장면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수 없다.

어떤 사실, 사건을 촬영하려고 할 때 사진기자는 해당 사실,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반적흐름과 있을수 있는 정황, 주위환경과 분위기 등 조형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기가 얻으려는 전형적인 장면을 예측해야 하며 예리한 관찰과 정확한 판단으로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게 될 순간을 제때에 포착해야 한다.

실례로 국제경기들에 출전한 우리 력기선수들의 경기장면을 찍는다고 하자.

이때 사진기자가 예측할수 있는것은 선수가 구간을 머리로 들어올려 평형을 유지하였다가 바닥에 내려놓는다는것이다. 즉 사진기자는 선수가 구간을 바닥으로부터 머리로 들어올리는 장면과 완전히 들어올리고 평형을 유지할 때의 장면 그리고 구간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의 장면을 예측할수 있다.

여기서 어느 장면이 가장 의의있는 절정장면으로 되겠는가. 다시말하여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구간을 들어올리는 선수들, 이 한순간을 위하여 수십, 수백일 피타는 정열과 훈련의 땀방울을 바쳐온 우리 체육인들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와 육체기술적준비상태가 어느 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구간을 완전히 들어올렸을 때의 장면도 좋은 장면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높이 들

있던 구간을 내려놓으면서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앞에 땀땀이 나설수 있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선수들이 성공의 환희를 한껏 터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사진기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정장면인것이다.

좋은 화면, 전형적인 장면은 결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밑에서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진기자가 심오한 창작적사색속에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며 정확히 판단하는것은 전형적인 순간을 사전에 예견하며 그러한 순간을 제때에 포착하여 촬영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된다.

이것은 정치행사나 체육경기와 같이 그 진행과정을 어느정도 예측할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불의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실, 사건에 대한 보도사진촬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진기자는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언제나 사물현상들을 깊이있게 관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보도사진촬영에서 순간포착을 잘하자면 또한 사진기자들이 사진촬영기재들에 정통하고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진촬영기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높은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민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사진은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의 한순간을 화면에 담게 된다. 사진기자들이 사진촬영기재들에 정통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진촬영기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극히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좋은 장면, 결정적인 순간을 제때에 포착하여 훌륭한 보도사진을 촬영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최신기술이 도입된 사진촬영기재들이 부단히 개발되어 보도실천에 적극 리용되는 조건에서 사진기자들은 사진촬영기재들에 정통하여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진촬영기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순간을 잘 포착하고 사진을 찍자면 이와 함께 사진기자가 높은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 높은 창작적열정과 민첩한 행동은 사진기자가 전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촬영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아무리 촬영준비가 잘되었다고 해도 사진촬영과정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는 높은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좋은 촬영위치를 잡기 위해 민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옹게 보장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에 관한 문제는 화면의 형식에 관한 문제로서 화면의 크기와 공간조직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해당 대상을 얼마만한 거리에서 얼마만한 크기로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옹게 보장하는것은 보도사진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보도사진이 아무리 정치사상적내용이 풍부한 사실, 사건을 반영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하면 대중에게 그 본질적내용과 의의를 정확히 전달할수 없으며 따라서 보도물로서의 인식교양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옹게 정하면 현실반영에서 나타나는 사진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현실생활을 폭넓고 깊이있으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에는 사진외에도 영화, 소설, 무대작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

개 형식에는 그에 고유한 수법이 있다.

소설은 언어적인 구사를 통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시공간속에서 역사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다. 종합예술인 영화는 현실을 생동한 움직임속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만큼 창작가와 연출가의 의도대로 시공간을 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사진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은 매우 단순하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하나의 사실, 사건을 놓고도 수십, 수백개의 화면들이 이어지지만 사진에서는 단 하나의 화면으로 해당 사실, 사건의 전모를 알수 있게 되여야 한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사진은 극히 짧은 순간(수십분의 1초)에 완성되게 된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옳게 보장하면 현실반영에서 나타나는 사진의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으면서도 생동하게 반영할수 있다.

보도사진에서 현실생활을 폭넓고 깊이있으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자면 해당 사물현상이나 사실, 사건뿐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환경까지 화면에 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도사진에서 환경은 배경으로 나타난다.

배경은 사진에서 화면의 조형적구성에 필요한 회화적인 요소일뿐아니라 주제를 보충하고 사실, 사건을 설명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실례로 답사행군대오의 모습을 반영한 보도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만일 보도사진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주위환경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없다.

그러나 보도사진에서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라고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비와 백두의 밀림을 배경으로 씩씩하게 행군해나가는 답사행군대오를 보여준다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따라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줄수 있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옳게 보장하자면 우선 촬영거리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촬영거리는 기본촬영대상과 함께 그를 둘러싼 주위환경이 사진기의 투시경안에 들어올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만일 촬영대상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기본대상만 크게 촬영한다면 주위환경이 극히 작게 나타나거나 전혀 보이지 않을수 있으며 반대로 기본대상에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촬영한다면 환경은 비교적 폭넓게 보여줄수 있지만 기본대상이 작아져 보도사진의 주제를 부각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기본촬영대상을 선정한 다음에는 주변환경속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촬영거리를 정해야 한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옳게 보장하자면 또한 화면의 크기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화면의 크기는 사진에서 기자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기본표현수단의 하나로써 화면규격이나 형태의 크기가 아니라 화면에 반영된 기본대상의 크기를 말한다.

화면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진에서 기본대상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내며 배경을 얼마만큼 넣겠는가 하는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화면은 크기에 따라 대사화면, 근사화면, 중사화면, 전사화면 등으로 나누어보는데 사람의 외모와 결부하여보면 쉽게 리해할수 있다.

즉 대사화면은 사람의 얼굴부분만 보여주는 화면이고 근사화면은 인물의 얼굴부터 가

슴옷부분까지 보여주는 화면이다. 중사화면은 인물의 얼굴부터 무릎옷부분까지 보여주는 화면이고 전사화면은 인물의 전신을 보여주는 화면이며 원사화면은 인물의 크기를 전사화면보다 더 작게 하여 인물을 둘러싼 보다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매 화면들은 현실을 반영하는데서 각각 우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대사화면과 근사화면은 기본대상만을 위주로 보여주기때문에 대상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인물인 경우 그의 성격도 명백하게 나타낼수 있다. 그러나 배경과 환경분위기를 잘 보여줄수 없으므로 시간과 장소 등을 정확히 나타낼수 없다.

중사화면과 전사화면은 기본대상과 함께 환경을 동시에 보여주기때문에 인물의 얼굴만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행동과 인물들의 호상관계, 인물과 주위환경과의 관계도 잘 보여줄수 있다. 대사화면이나 근사화면에 비해 해당 대상의 구체적인 세부나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다.

사진기자는 매개 화면들의 이러한 우점과 제한성을 잘 알고 해당 대상이나 사실, 사건의 본질적내용과 사회정치적의의 등이 보도사진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화면의 크기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흔히 보도실천에서는 전사화면과 중사화면을 많이 리용하게 되는데 주위환경을 반영하는데 치우쳐 기본대상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대상과 론리적인 련계가 있거나 그의 관심사가 될수 있는것을 배경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우연적이고 불필요한것들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사화면이나 근사화면도 리용할수 있지만 이 화면들에는 그 어떤 세부를 배경으로 배치할수 있는 빈공간이 극히 적다. 그러므로 인물이나 해당 대상을 약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또는 약간 올리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인물의 얼굴외에 취급하는 사실, 사건의 특징적인 요소가 들어오도록 할수 있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옳게 보장하자면 또한 배경과 근경을 주동적으로 잘 조직하여 구도를 잡아야 한다. 다시말하여 주어진 화면에서 공간조성을 잘해야 한다.

화면에서 공간조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원경이나 근경으로 보여주게 될 환경이나 대상을 잘 선택하여 공간의 깊이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대상의 움직임은 화면의 어느 위치에서 포착하겠는가를 잘 타산해야 한다.

사진화면에서 보여주려는 기본대상은 화면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한 구도구성에서 중요한 몫을 맡을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배경으로 되는 주위환경은 기본대상과 항상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기자는 촬영의도에 맞게 기본대상의 움직임이 정확히 안겨오면서도 화면전반의 균형과 공간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보장될수 있는 위치에서 대상을 포착해야 한다.

보도사진의 규모와 폭을 옳게 보장하자면 또한 촬영렌즈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사진기자는 촬영렌즈들의 특성을 잘 알고 촬영대상에 따라 여러가지 촬영렌즈들을 적극 리용해야 한다.

실례로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렌즈는 시야각이 넓고 초점심도가 매우 깊으며 원근감을 크게 강조한다. 따라서 제한된 촬영거리안에서도 대상의 전모를 폭넓게 보여줄수 있고 멀

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들도 비교적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수 있으며 대상들의 거리상 차이를 잘 나타낼수 있다. 그러나 모양을 심히 외곡시키는 결함이 있는데 화면변두리로 갈수록 물체들의 모양이 곡선으로 변형된다.

한편 초점거리가 긴 망원렌즈는 시야각이 좁고 초점심도가 매우 얇다. 따라서 거리에 따르는 외곡은 있지만 촬영대상에 대한 과장과 대상의 모양이 이지러지는것이 적으며 기본 대상을 강조하는데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원근차이가 적게 나타나는것으로 하여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

렌즈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촬영대상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여 리용한다면 보도 사진에서 규모와 폭을 옳게 보장할수 있다.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는것이다.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는것은 보도사진의 사상예술성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일반적으로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는다는것은 보도사진의 주제령역을 넓히며 해당 사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반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보도사진의 주제령역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현실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생활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반영할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 사건을 놓고도 여러 측면에서 각이하게 찍어야 사람들에게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시킬수 있다.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자면 우선 사진기자들이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 당의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벽찬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한다.

사진기자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변두리만 빙빙 돌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들만 촬영한다면 당의 령도밑에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 있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할수 없으며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을 생동하고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자면 또한 촬영위치와 구도를 천편일률식으로 정하지 말고 대상과 정황에 맞게 잡아야 한다.

화면에 담아야 할 대상의 특성과 정황에 맞게 촬영위치와 구도를 다양하게 잡아야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화면을 보여줄수 있다.

보도사진촬영에서는 촬영위치를 자유롭게 바꾸면서 거리와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자면 또한 본위주의를 없애고 사진기자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행사나 사실,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여러 출판보도기관들에서 파견된 사진기자들이 거의 동시에 촬영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사진기자들이 저마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초점도 제대로 맞출수 없으며 행사나 사실, 사건진행과정을 폭넓고 다양하게 보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사진기자들은 사진을 찍는 순서와 구역을 바로 정하고 그에 따라 사진촬영

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각이한 위치와 각도에서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을수 있다.

이처럼 보도사진을 다양하게 찍자면 현실을 깊이 파고들어 폭을 넓히며 구도를 다양하게 잡을뿐아니라 사진기자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사진기자들은 보도사진촬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를 잘 알고 인민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보도사진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보도사진, 촬영